

## 인구문제에 대한 새

- 7월 11일 인구의



金炳日  
통계청 통계청장

우

리나라에서 인구정책이 시행된 지도 30여 년이 흘렀다. 그 동안 가족계획사업 등 강력한 정책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출산수준이 급격히 낮아져 높은 수준을 보이던 인구성장률이 최근 들어 1%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의 인구정책은 우리나라의 인구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산아제한을 통해 인구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같은 시기의 산업화 정책에 따른 경제사회발전에 힘입어 조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는 사망률, 출산율, 인구성장률에 있어 선진국처럼 낮은 수준의 안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시설 및 기술,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은 이미 크게 떨어졌고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출산수준도 급격히 낮아져 요즈음은 평균 한두 명의 자녀만 낳는 추세이다.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양적 인구조절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즈음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인구규모는 안정되고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나 성비의 불균형 등과 같은 인구의 구조적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조절의 결과 출산자녀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아에 대한 남아의 비율인 출생성비는 110을 훨씬 웃돌며 비정상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기는 하나 1980년대 중반이후 지속된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초등학교 교실

# 로운 인식을 가져야

날을 맞이하면서 -

만 보더라도 남자끼리 앉아 있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은 전통적인 남아선호관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고,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유산으로 선택적인 출산이 행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가족계획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인구 고령화 현상이다. 출산력의 저하로 저연령층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는 늘어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도 머지 않은 2000년경에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몇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차세대를 담당하게 될 우리 후세대 아동인구가 계속 감소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우리 가정과 나아가서는 사회가 생동감과 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자질향상이 바람직하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아동인구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기반의 충실, 교육 및 사회환경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둘째, 아동인구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생산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이로 인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노동력의 부족문제가 대두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탈피 등 산업구조의 재조정을 통하여 제한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또한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하여 고령자, 여성 등의 유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노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가속

화시킬 것이다. 앞으로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령화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물론이고 단순한 피부양인구로서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는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회환경을 정비하는 등 사회의 전반적인 짜임새를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와 문화적 기반이 비슷하고 인구변천과정을 훨씬 먼저 경험해 온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이 국민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인생 80년 시대에 알맞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은 환경, 교통, 복지, 교육, 가정생활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삶의 질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물론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경제사회구조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요인은 인구현상의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 하면 인구현상 그 자체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조건 지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각종 인구변동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 주는 인구통계의 작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과거 우리 정부가 보여준 인구억제에 대한 열정 이상으로 인구의 자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